제 1110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13년 4 월 21 일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3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행동지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 행 인 : 박노철 발 행 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장애인 주일 메시지

당신은 축복의 통로

목사 박노철

성경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장애, 등등의 이야기가 무려 200번 가까이 나오는데, 장애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구약의 백성들은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하며 조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장애인들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받는 특권을 누렸고, 예수님은 장애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예수님은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귀한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결코 구약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특권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임을 알려주고 위로해야 할 것이며, 귀하고 좋은 자리들을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교회 사랑부와 에바다부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울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그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취급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랑과 배려를 받는 특권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꾼들로 인정받는 분들, 주님의 귀한 자리에 서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사랑부

교구가족들의 단결과 연합을 통한 교구특별찬양

- 6월 첫 주부터 7월 첫 주까지 찬양예배 시 6회에 걸쳐 -

그동안 체육대회와 함께 격년제로 실시되어 오던 교구찬양대회가 올해에는 교구위원회(위원장 : 임상헌 장로) 주관으로 교구목사 담당교구별로 연합하여 주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으로 드려지게 된다.

이전에 전 교구가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개최한 교구별 찬양대회가 성도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교구간 불필요한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특히 교구에 따라서는 그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소 위축된 모습으로 참여에 많은 부담감을 갖는 등 아쉬웠던 점이 있어 이번에는 작년 교구체육대회가 교구목사가 섬기시는 교구별로 연합하여 모였던 것처럼 찬양대회 역시 몇몇 교구가 연합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일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 형식으로 6월 첫주부터 7월 첫주 사이 총 6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드리게 된다.

모든 교구 가족들이 미리 모여 연습할 때부터 서로 호흡을 맞추어 단합하는 기회가 되고 자기 교구만이 아니라 같은 교구목사님이 섬기는 인근 교구와도 서로 마음을 합하여 좋은 화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연합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여하는 모든 교구원들이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특별찬양순서는 다음과 같다.

· 6월2일 1, 16교구
· 6월9일 2, 3, 4교구
· 6월16일 5, 6, 7, 8교구
· 6월23일 9, 10, 12교구
· 6월30일 11, 14, 15교구
· 7월 7일 13교구

찬양대원 세미나 및 연합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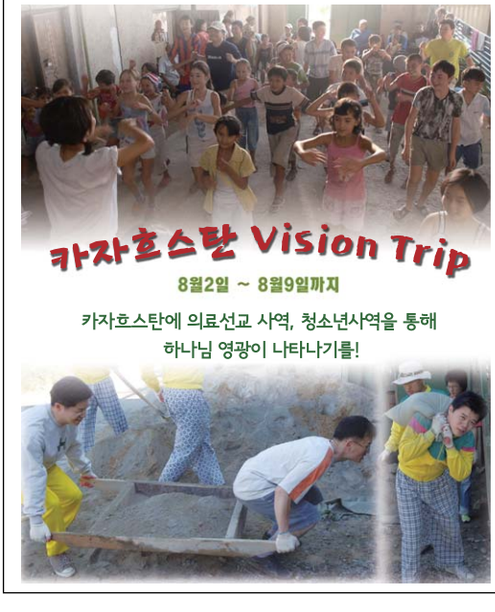
· 일 시 : 4월 23일 (화)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웨스트민스터 홀
· 주 제 : '성가에 가장 어울리는 소리란?'
· 대상 : 모든 찬양대원(교회학교찬양대 포함)
· 강 사 : 염진섭 교수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미국 하트포트 음악대학 석사 (합창지휘전공)
– 미국 아리조나주립 음악대학 박사 (합창지휘전공)
– 기독교방송합창단 상임지휘자 역임
– 국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감독 역임(7년)
– 현재. 백석대학교 음악과 교수
· 간단한 식사 준비 : 6시 ~ 7시 20분 , 만나홀

제1 · 2권사회 월례회

오는 24일 수요 1부 예배 후(오후 1시) 권사회 월례회 시 시무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장로후보 투표가 있다. 이 날 제 1, 2 권사회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함께 투표한 후 각각 월례회를 한다. 시무권사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투표에 임하기 바란다.

신생아 등록 안내

우리교회는 지금까지 신생아 등록신청을 교구목사들이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후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담임목사의 축복기도를 받은 후 당일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202호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 Vision Trip

우리교회는 2013년 Vision Trip Team(지도 서명철 목사, 단장 이준호 집사)의 선교지역을 카자흐스탄으로 정하고 8월2일부터 8월9일까지 7박8일 동안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따라즈 미르교회를 중심으로 의료사역과 청소년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경비는 1인당 약 150만원으로 자비량이며, 모집대상은 의료팀 및 청소년사역팀 총 25 명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는 4월21일까지 사무국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카자흐스탄은 무슬림국가로 이번 Vision Trip을 통하여 헌신적인 치료와 청소년 봉사를 수행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확신한다. 카자흐스탄의 Vision Trip에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린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84]

(문 83) 믹마스에서 이스라엘과 대적한 블레셋의 병거가 삼 만이라 했는데(삼상 13:5) 이것이 사실 가능한 숫자 입니까?

(답) 믹마스는 꽤 넓은 계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공간에 병거 삼만을 배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거의 크기가 얼마인지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마병이 6,000명이라 한 것으로 보아(삼상 13:5) 병거의 수는 오히려 적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다른곳에서는 기병대와 병거를 함께 말한 곳도 있습니다(삼하 10:18, 왕상 10:26, 대하 12:3등)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수의 블레셋의 병거는 고대 애굽이나 앗수르 갈데아 페르샤의 군대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 전투에서 가장 많은 병거가 투입된 전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병거는 보통 두마리의 말이 모는 전쟁용 수레로서 일반적으로 병거는 마병보다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넬뤼치는 그 수는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yriac(Peshitto)와 Arabic역본에 의한 30,000 대신 3,000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1,000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0으로 읽을 경우 30이 여기에 덧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필경사의 실수로 Yisrael이라는 단어도 두 번 쓰였고 그 결과 두 번째 것은 점을 하나 더 붙임으로 30으로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전 3세기 이전에는 히브리 서기관들이 사용했던 수에 대한 기호체계는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이미 마죠라 텍스트와 같이 읽었고 따라서 삼상 13:5에 기록한 수는 본래 3,000일 가능성이 높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3,000을 후일 사본 전달과정에서 30,000으로 잘못 베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본을 베끼는 과정에서 이름이나 수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옮기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 같은 본문의 오류가 다른 책들에 비해 많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 무오설과는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성경무오설은 원본을 두고 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본은 베끼는 과정에서 생긴 오자를 찾아내어 원본을 찾아 나아가는 작업을 본문 비평학이라 부르는데 이 같은 본문비평학은 보수나 자유주의 모든 학자들이 성경연구에 이용하는 방법론입니다. (다음주 계속)

성경통독자 시상

- 찬양예배 시간에 -

17독 – 지윤준성도 (호산나학교,청년부)
2독 – 최복순 권사(7교구)
1독 – 강영순 권사(6교구) 윤주일 집사(7교구) 이남성 집사(9교구) 임훈규 장로(10교구) 이경희2 권사(11교구, 에바다부) 김수정12 집사(13교구) 김종구(13교구,중등부) 장양일 집사(16교구)

장애인주일 – 사랑부

영적 장애가 더 큰 장애

안치영 집사
(사랑부 교사)

사랑부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모여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부서입니다.

서울교회 사랑부는 왜 이름이 사랑부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편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장애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은 모두 장애인입니다. 육신의 장애만 장애가 아니고 영적인 장애가 더 큰 장애인듯 합니다. 저희 사랑부 친구들은 육신은 비록 허약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합니다. 남을 속일 줄 모르고 얼굴에는 항상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기라도 하듯 남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아이들입니다.

예전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피하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장애인를 보면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다가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랑스럽고 복된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호흡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언제나 사랑부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서울교회 102호로 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부 친구들이 성도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장애인주일 – 호산나대학

성령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이동귀 집사
(호산나대학 부학장)

하나님의 사랑과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머금고 무럭무럭 풍성하게 성장한 호산나대학은 2012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은사들이 드러나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 사랑은 더 짙어져만 갑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호산나대학 전 교직원들은 발달장애인의 전문인력 양성과 이들이 사회인으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 드리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학 내 4개 학과(사무자동학과, 서비스학과, 노인케어학과, 뷰티케어학과) 졸업생의 60% 이상이 공공기관 4곳, 서비스업 8곳, 노인요양원 5곳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해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인 나라기록관에 7명의 학생들이 어려운 경쟁을 뚫고 당당히 취업해 학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학생들은 나라기록관 관계자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아니라 준비된 학생들을 보내준 호산나학교에 감사하다는 칭찬을 받음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경력개발을 위해 현재 서울교회사무국을 비롯해 외대도서관, 노인요양원, 카페, 박승철헤어 등 20여개 기관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수업과 병행해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서실무사, ITQ, DIAT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교내에서 교육하고 있으며 40명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 바로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입니다.

풍성하면 넘치기 마련이고 가득차면 드러나기 마련인데...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인주일 – 에바다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꿋꿋히 이겨나가리라!

박성규 집사, 정명훈 집사 부부

저는 경남 경주에서 태어났으며 제가 3세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으로 청력을 잃게 되었으며 제가 자라면서 장애로 인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여 답답하고 불편해서 저는 낙심하였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위해 상경하여 영락농인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은 늘 소외감으로 외롭고 제 마음이 힘들어 교회를 그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만 두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몇 군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이 깊지 못하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모르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3년전 우연히 임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며 서울교회 에바다부에 등록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새롭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주일이면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경기도 여주에서 오는 먼 길도 즐겁고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졸업후 도자기 일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농인으로서는 최초로 여주대학교 시설관리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곱고 예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천주교 신자였지만 제가 전도해서 개종하여 우리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께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고 건청인인 두 아들도 교회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가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과 은혜라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꿋꿋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리라 주님앞에 다짐해 봅니다.

만민에게 전도 – 마가다락방

나사로를 찾아서

70인 전도대

부잣집 대문에서 주린배를 채우려던 나사로가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줄 알았다면 부자는 주님처럼 그를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담배와 술에 인박인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고 박노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후부터 지체가 부자유한 등록자가 부쩍 늘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기에 전도대는 그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새가족부와 상의하여 좁은 공간을 마련하고 "마가다락부"라 하며, 예배와 점심식사 후에 다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며, 그림 그리기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간식을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주 아프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찾아 돌보며, 끝없는 주님의 마음을 주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병들어 입원하면 병원으로 찾아 가고, 생을 마치는 분이 있으면 교구목사님을 모시고 장례를 치러 드리며 구제금을 전하고, 봄가을로 신앙 수련회와 위로회를 갖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며 2년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것 같던 그들의 입가에 미소가 비치더니 전도대원을 보면 반가워하며 웃기도 하고 아픈 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차츰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는 성도가 생기고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겉옷에 성경말씀을 수놓고 신앙을 고백하는 글을 써오기도 하며 즐기던 주초를 멀리하는 이가 늘어나고 친구를 전도하고 노방전도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육이 연약한 더 많은 나사로가 교회에 와서 변화를 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사가 수종드는 영광의 그날 까지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인 서울교회 70인 전도대는 땀과 눈물 흘리는 고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천국시민양성 – 장년부 오후반

교제와 기도합주의 장, 장년부 오후반

박동률 집사
(장년부 오후반 회장)

오후에도 성경공부할 수 있는 모임, 여기 장년부 오후반이 있습니다. 생소할지 모르나 그간 30대 분들을 중심으로 3부 예배후 하는 성경공부반을 소개합니다. 오후 3시반 702호에서는 가슴에 까지 와닿는 이선희 목사님의 로마서 말씀을 듣고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하고 한 주간의 삶도 같이 나눕니다.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처했던 삶을 나누고 합심기도로 응답을 구하는 교제에 몰두하는 한 시간은 정말 생활에 커다란 힘과 기쁨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오묘한 성경말씀 충분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중심하여 삶에 적용한 경험과 적용해야할 것을 서로 나누어 자녀양육과 사회생활로 건조해진 우리 심령이 큰 힘을 얻습니다. 이어 서로의 기도제목을 갖고 간절히 통성기도하니 기도 응답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활력이 넘칩니다. 최근에는 신학공부차 우리나라에 온 미얀마 선교사의 자녀가 참석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더 알고 기도하는 선교지로 정하고, 그에게 힘이 되고자 애씁니다. 그를 통해 소중한 복음이 더욱 소중함을 느끼니 우리 신앙에 커다란 도전이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젊은 30-40대는 자녀양육과 사회생활로 가장 바쁘다고 해야 할 세대이나 그렇다고 자기 신앙 성숙을 향한 노력을 잠시 멈출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교제와 기도합주의 장을 이곳에서 만들어 나가기를 권합니다. 3부 예배후 성경공부를 하고 싶은 성도들에게는 이 장년부 오후반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 별 찬 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장애인주일을 맞아서 사랑부(부장 : 강성은 집사)와 에바다부(부장 : 안인호 집사)의 찬양으로 드린다.

사랑부는 이아름 선생의 지휘와 박길순 집사의 반주로 "예수 사랑하심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의 두곡을, 에바다부는 이순임 집사의 지휘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의 두 곡을 수화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미국 워싱턴지역(시애틀, 다코마, 올림피아) 목회자세미나 인도차 4월23일(화)출국하여 5월3일(금) 귀국한다. 4월28일 주일엔 써니베일 리빙워드 연합교회에서 설교한다.

■ 개업 : 장성자 집사(13교구) 장성자의 건강 다이어트 클럽(대치2동 992-1 현대상가1층) 010-2988-5789

■ 연주회 : 서울필로첼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4교구 박수강 집사) 세종체임버홀 4월26일 금요일 7시 30분

■ **주간식당봉사:** 스데반회(4.21) 제1권사회(4.28)

■ **금주의 식사** : 박홍래집사 우미란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옥자 성도 가정(정태규 성도 장례)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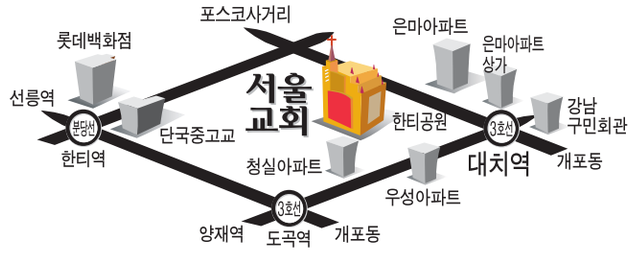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우들을 위해 사랑과 친절로서 항상 배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2. 카자흐스탄 단기선교를 통해서 팀원들이 먼저 영적인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선교지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100배로 열리도록
3. 23일 출국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미국에서의 사역을 잘 마치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와 함께 귀국하실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Ⅲ,Ⅳ 층
	Ⅱ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Ⅱ,Ⅲ 층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Ⅱ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